

2025년 지구를 위해서는

기고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46억년 지구의 역사, 탄생 이후 다양한 지질시대를 거쳐 인류는 1만1000년 전 시작된 신생대 제4기 홀로세(Holocene) 시대를 살고 있다.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 기후가 온화해지면서 인류는 알맞은 기후와 풍부한 물, 그리고 맑은 공기 속에서 인류 문명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

지금 지구는 안녕할까. 4월 22일은 '지구의 날'로, 지난 1970년 미국의 일반 시민들이 이날을 '지구의 날'이라 명명했다. 그 후 지구의 날은 세계적 환경 캠페인으로 퍼졌다. 그로부터 55년, 올해 지구의 날 전후도 세계 각처에서 건강한 지구를 염원하며 다양한 캠페인이 개최되고 있다. 그럼에도 '과연 오늘 우리의 지구와 환경 생태계는 안녕하고 건강한가?' 서로 묻고 답하며 토론해 볼 의제이다.

지난 2015년 국제사회가 '파리기후협정'에서 '지구 평균 온도를 세기말까지 섭씨 1.5도를 넘지 않도록 하자'는 약속을 처음으로 여겼다.

지난해 대기 중 CO₂ 농도 또한 422 ppm, 신기록 행진 중이다. 매년 2~3

ppm 상승하고 있다. 대기 중 CO₂ 유입이 계속되며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세계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지난해 비약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했고, 탄소 배출도 증가했다.

지구 빙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놓고 올해 국제적으로 관심이 크다. 북극과 남극, 히말라야와 알프스 등은 누천년 빙하로 덮여 있다. 지구상에는 약 22만 개 이상의 이름을 가진 빙하가 있다. 그곳은 눈과 얼음의 천국, 영원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지구 빙하의 운명은 풍전 등화와 같은 신세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금세기 말까지 히말라야와 알프스 빙하를 포함해 50% 이상의 빙하가 녹아내릴 가능성이 있다.

최근 세계기상기구(WMO)에 의하면 지난 5년 '빙하의 퇴각'이 기록적이다.

극지방 빙하도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 유엔은 매년 3월 21일을 '국제 빙하의 날'로 제정했다. 더 이상 빙하의 상실을 방치하지 말고 지켜내자는 뜻에서다. 빙하는 지구 육지 표면의 10%, 지구의 담수(민물)의 70%를 저장하고 있다. 지구 생태계의 귀중한 존재이다.

빙하는 지구로 오는 태양광선을 반사해 다시 우주로 돌려보내며 지구 기후 체계를 조절한다. 해빙은 기후 조절 기능을 망가뜨리고 온난화를 부채질하며 자

연 생태계를 파괴한다.

히말라야와 알프스와 같은 내륙 빙하는 그 자체가 거대한 물탑(Water Tower)이다.

물탑은 그 지역의 크고 작은 강줄기가 되고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수자원이다. 식수와 농업, 공업 등 각종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해빙은 물탑이 깨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의존한 사람들의 삶과 농업, 산업에 직격탄이다. 극지방의 해빙은 해수면 상승의 요인이다. 세계기상기구(WMO) 최근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해수면이 연평균 4.7mm 상승했다. 20년 전보다 두 배 이상이다.

해수면 상승은 세계적으로 해안가나 저지대 도시와 시민들에게 치명적이다. 금세기 어느 시점부터 수억 명이 강제이주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정치·경제·문화적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고, 나아가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2025년 '우리의 공동의 집(Our Common Home)', 지구는 우울하다. 환경과 기후, 생태계를 지키려는 눈부신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파괴의 힘이 더 강하다.

보전의 힘을 더 강하게 키워야 한다. 그 길이 안녕하고 건강하며 활기 넘치는 지구를 위한 길이다.

社說

송정역 증축공사 또 다시 지연이라니

시공사 법정관리로 낙찰 취소

'광주의 관문'인 KTX 송정역 증축 공사가 또 다시 멈췄다. 시공사 선정까지 다섯 차례 유찰 끝에 가까스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낙찰 업체의 법정관리로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21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광주송정역사 증축 공사 업체로 선정된 A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낙찰 취소 결정했다. 5번의 유찰 끝에 낙찰업체를 찾았지만 이번에는 법정관리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하반기에 공사 업체 재 선정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사 업체가 취소되면서 광주송정역 증축은 2029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송정역 증축은 광주의 관문인 송정역 대합실 등을 2배 규모로 늘리는 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은 설계까지 마치고 지난해 1월부터 공사업체 선정에 나섰다.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3차례 입찰에서 공사업체를 찾지 못했으며 공모 수준을 낮추고 입찰금액을 33억원 증액

하며 재입찰을 시도했지만 2차례나 무위에 그쳤다. 국가철도공단은 규정 등을 완화하고 6번째 입찰을 시도해 컨소시엄 형태의 A건설사 등을 수의 계약 방식으로 낙찰했다.

오랜 시간 지지부진했던 시공사 선정 과정이 가까스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결국 업체의 법정관리로 낙찰이 취소됐다. 이미 1년을 허비한 상황에서 시민의 불편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송정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광주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관문이자 도시 브랜드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광주에 처음 발을 들이는 수많은 방문객이 처음 마주치는 공간이 바로 이곳이다. 그만큼 역사 공간이 지닌 상징성과 이용환경의 질은 도시 이미지와 직결된다.

이제 더는 미뤄선 안 된다. 공단은 하반기 공사 재 공모를 절대 실패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입찰 조건의 현실성, 시공사의 안정성,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KTX 개통 이후 급증한 이용객수에 걸맞게 명실상부한 '광주의 첫인상'을 새롭게 디자인 해주길 바란다.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의대생 수업거부

교육 차질로 시스템 붕괴 안돼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이어지면서 유급 예정 대상자가 줄줄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2026학년도 각 의과대학 모집 학생이 증원 정책 전으로 환원된 상황에서 자칫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안이 없는데다 명분마저 부족한 의대생들의 수업 불참이 안타깝다.

당장 전남대의 경우 대면 강의 참여율은 전체 학생의 10%대로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 의대는 우선 본과 3~4학년 중 각 실습 강의에 불참한 일부 학생에게 F학점이 불가피하다며 지난 주부터 개별 통보하고 있다. 의대는 한 과목이라도 한 학기 수업 일수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이수하지 않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징계가 불가피하다. 조선대 의대 역시 소수만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미 실습 강의 한 과목에 대해 결석이 잦은 본과생 일부에게는 '이수 수업 시수 부족'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렸다. 유급 대상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예고하는 절차라고 한다. 변화가 없다면 전남대와 조선대 모두 의대 본과 3~4학년생 중 유급 예정 대상자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과생들의 수업 일수가 미달되는 이달 말이면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내년도 의대 학사 운영도 어려워진다. 여기에 24·25·26학번이 한 번에 한 학년에서 수업을 듣는 초유의 '트리플링' 사태가 벌어지면 의대 교육 전반에 차질을 빚게 된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사 양성 과정에서 교육이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곧 의료 시스템 붕괴를 의미한다. 의사를 목표로 오랫동안 고심하며 입시를 준비해 온 학생 개개인의 진로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미 내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기로 한만큼 학생들은 즉시 수업에 복귀해 정부가 내놓은 증원 백지화라는 대안에 호응해야 한다. 의사 단체도 국가적 위기인 대량 유급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학생들은 수업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 대량 유급 이후, 유급생과 내년도 신입생이 한 학년에 몰려 수업을 함께 듣는 것은 정부와 대학, 학생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0일(현지 시간)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판티 카니발'이 열려 화려한 의상의 여성이 춤추고 있다. 아프리카-브라질 유산을 기념하는 판티 카니발은 화려한 의상과 퍼레이드, 전통 음악과 춤을 통해 아프리카-브라질 문화의 정체성과 공동체 정신을 표현하며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상징적인 문화 축제에 평가받고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호남 화단의 종조라 불리는 소치(小癡) 허련은 순조 9년(1809) 남도땅 궁벽한 섬 진도 쌍정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그림그리기를 즐겨 하던 허련은 20대 후반, 당대 최고의 학승 초의선사에게 학문을 배웠고, 녹우당의 공재 화첩을 보고 채법과 화법을 수양했다.

그림공부에 매달린 지 수 년, 소치가 33세 되던 해 초의 스님은 허련의 습작 몇 점을 한양으로 보낸다. 조선 후기 예원의 마지막 불꽃 추사(秋史) 김정희의 화실이다.

그림을 본 추사는 허련을 단박에 한양으로 부르다. 이후로 추사의 문하에 입문해 본격적으로 서화를 배우게 된다.

허련의 그림이 농익을 무렵 낙선재에서 현종임금을 알현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 권돈인 등 권문세가들과 함께 글을 짓고 그림을 그렸다.

허련의 아호도 스승 김정희가 직접 지었다. 추사는 남종화의 대가로 성장한 허련을 두고, 중국 원나라 전설의 화가인 대치(大痴) 황공망과 견줄만하다고 해서 허련에게 소치(小癡)라는 아호를 내려준 것이다.

허련은 '천리를 여행하라'는 추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그야말로 북한 자루 들고 조선팔도 산하를 유람한 뒤에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온다. 소치 나이 50세쯤이었다고 한다.



올해의 나무

당파 싸움에 영일이 없었던 시류에 스승 추사가 유배를 거듭하다 타계하자, 소치는 진도 점찰산 쌍계사담 옆에 작은 산방을 짓고 안착한다.

초가에는 '운림각'이라는 당호를 짓고 거실에는 '목의헌'이라는 편액도 걸었다. 허련이 1893년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림에 매진했던 운림산방이다.

천부적 예술가의 감성은 산방을 짓는데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산방앞에 널따란 연못을 파 운림지라 이름하고 연꽃을 심었다. 연못 한가운데에는 작은 섬을 만들어 선비들의 곁

결합을 상징하는 자미나무도 심었다. 지금도 여름이면 청초한 수련이 연못 가득 피어 오르고, 붉은 빛 선연한 배롱나무 꽃이 석달 열흘 피어 운림지에 비친다.

선비들의 관상수 배롱나무는 예로부터 사대부들의 사랑을 받아 사당, 절집 뜰, 선비의 원림(苑林), 서원에 많이 심었다.

운림산방의 95년 된 배롱나무가 산림청의 '올해의 나무'로 선정됐다는 짙막소식에 몇해 전 지인들과 산방에 들렀던 기억이 떠오른다.

운림산방은 살면서 한번은 가봐야 할 인생여행지 가운데 하나이다. 발길이 닿는다면 내 좋은 벗들과 다시 찾아 산방 뒷마루에 앉고 싶다. 최도철 미디어국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nilbo.com m.jnilbo.com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